

## ■합심기도(은 가족을 축복하며)

### ■기 도(인도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해를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된 여행을 출발하는 한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주의 기도(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설날을 은혜롭게 지키는 방법

①음식준비 - 음식은 조상이 와서 먹는 것이 아니므로 제사상으로 차리면 안 됩니다. 간편한 음식을 준비하였다가 예배 후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 됩니다.

②절하는 문제 - 고인의 사진이나 영정 또는 음식물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는 죄가 되므로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므로 살아계신 부모님께 절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③불신 집안에서의 문제 - 가족 전체가 믿지 않아 제사를 드려야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절하는 대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이 때 분명하게 신앙상의 이유로 절은 할 수 없지만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고 가족 앞에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④성묘를 갔을 때 -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한다든지 묘지에 술을 붓는 행위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묘에 묻힌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묘지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면 됩니다. 불신 집안일 경우에는 함께 서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쓰십시오.

우리도 언젠가는 한줌의 흙이 되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다짐해야 하고, 서로 사랑으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조상들이 남겨 놓고 가신 훌륭한 뜻을 받들어 교훈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끝.

교회설립일 1952.6.8

## 설날 가정 예배

# HIS STORY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찾으시는 성도

### Main Value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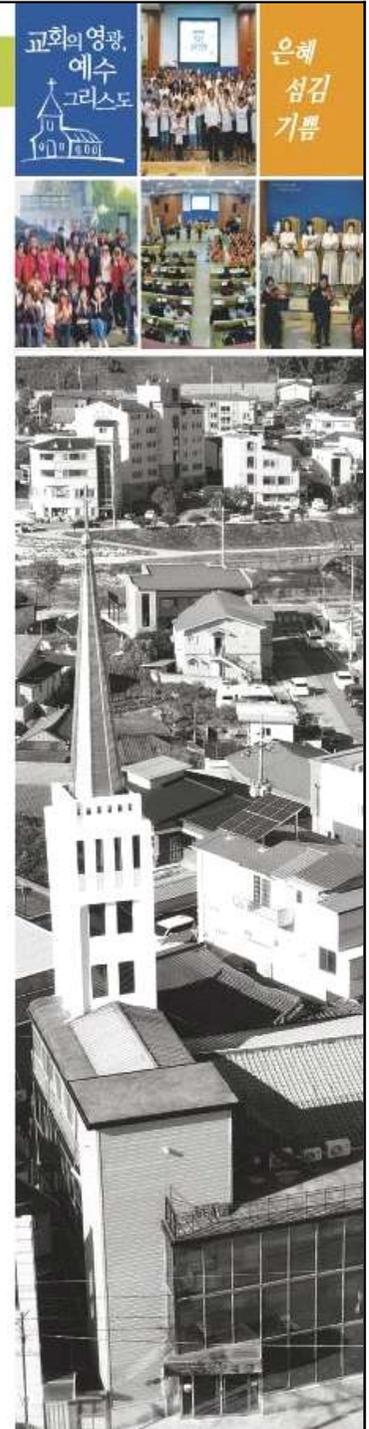
1.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2.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3.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이 있는 교회
4.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교회
5. 구원 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하늘의 장  
**함양중앙교회**  
HamYangJungAng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강 신 현

50035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길 3  
055)964-1004 FAX 055)964-1003

[www.hyjc.org](http://www.hyjc.org)



■신앙고백(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가(다같이)

(통일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

찬양  
 R. Robinson, 1758  
 보충으로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잠상 7:12)  
 NETTLETON: 67.87. D.  
 Wyeth's Repository of Sacred Music, 1813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의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 도(말 은 이)

■성경봉독 및 말씀 『신명기 31:7-8 / 약속의 땅을 향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은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한해를 내다보면서 지난해를 반성하고 다가오는 해를 믿음으로 설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해를 여행하여야 합니다. 준비 없이 여행을 출발하기보다는 준비를 갖춘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여행을 잘 준비하고 새해의 여행을 출발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행의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한 여행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야할 목적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 지도자라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왜소함을 느낄 수 있고, 백성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여행은 무척이나 험난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피하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믿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행통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주님이 앞장서서 일하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어가는 믿음의 여행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